

2021 작은도서관 이야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2021

작은도서관 이야기

2021
작은도서관
이야기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작은도서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contents

INTRO

목차
들어가는 말
2021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part 01. 공립 작은도서관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14
봉아름작은도서관	18

part 02. 사립 작은도서관

I. 아파트 운영 작은도서관

송골우남 작은도서관	24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28
넓은세상 작은도서관	32

II. 교회 운영 작은도서관

별마로 작은도서관	36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	40

Ⅲ. 단체 운영 작은도서관

물푸레 작은도서관	44
와글와글작은도서관	48
언니네작은도서관	52

Ⅳ.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행복한 산책	56
고래이야기	60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64

Ⅴ. 특화 작은도서관

들고지작은도서관	68
----------	----

part 03. 알록달록 도시 책축제로 물드는 문화

서울국제도서전	74
도서관주간	80
경의선 책거리	82

part 04.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 사서함	88
나의 인생 책 속 한 문장	92
작은도서관 이야기 공모전	96

들어가는 말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교육, 환경,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생활 친화적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도서관을 굳건히 지키려는 운영진들의 부단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야기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며 서로의 온기와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며 자신은 물론 이웃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데 기여합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년부터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도서관 운영에 보탬을 주는 어르신까지, 작은도서관은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는 터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곳과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추천 운영사례를 운영 주체별로 모아 발간한 작은도서관 이야기 사례집이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운영의 참고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1월 [전북 진안]
진안 푸른꿈 작은도서관**

임시 휴관 중 비대면으로
진행한 푸른꿈 다울 책놀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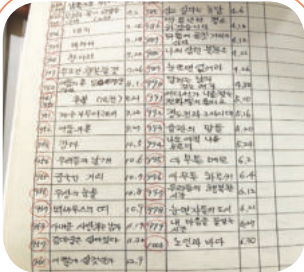
**2월 [부산 부산진구]
가야감고개공원작은도서관**

누구나 쉽게 읽고 느낄 수 있는
책 읽어주는 엄마 동아리를
진행했다.



**3월 [경기 시흥]
이루다함 작은도서관**

그림책 '걱정이 너무 많아'
원화를 도서관 입구에
전시했다.



**7월 [전남 목포]
청개구리작은도서관**

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한 지
10년 가까이 된 이용자의 천 권
도서기록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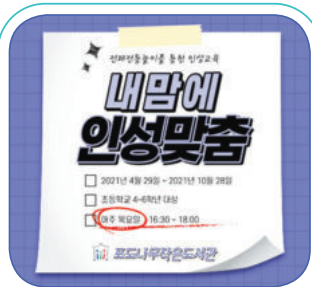
**8월 [전남 담양]
담빛길 작은도서관**

방송반에서 방송 대본 교육과
영상 편집 기술 교육, 유튜브
활용방법을 배우고 스튜디오
에서 생방송을 체험했다.



**9월 [경기 성남]
사랑나무작은도서관**

MBC 창작동요대상을 수상한
이미지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와와의 만남을 가졌다.



**4월 [인천 부평]
포도나무 작은도서관**

전래전통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인 2021년
부평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5월 [전북 김제]
길보작은도서관**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하는 독서환경 실현을 위해
독서 50권 챌린지를 진행했다.



**6월 [서울 중랑]
책소리 작은도서관**

도서관의 이용안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공유했다.



**10월 [전북 무주]
무주만나작은도서관**

'내맘대로공작실' DIY키트를
활용하여 EM 비누를 만들었다.



**11월 [경북 포항]
연일을 미르작은도서관**

도서관 인근 어린이집에
견학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다.



**12월 [충남 천안]
천안 시티자이 꿈빛 도서관**

크리스마스 맞이 이용자의
새해 소망을 담은 소망 트리를
꾸며 전시했다.

01 공립 작은도서관

Part.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봉아름작은도서관

민들레처럼 퍼져나가는 독서 문화의 꽃씨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주민지원센터 3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이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통합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 부천시 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 룬비니가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을 꿈꾸는 민들레홀씨는 오늘도 이용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운영	주소	유형
월~금 09:00~18:00 (토, 일 휴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동로 117번길 48 (상3동 주민지원센터, 3층)	공립 작은도서관

주민들의 독서 욕구로 만들어지는 곳

상동마을에 들어서 다양한 가게들을 지나면 아파트단지과 공원들 사이 아이들이 도란도란 책 읽는 소리가 새어 나오는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이 보인다.

부천시 민관 네트워크 대표 단체인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가 발표한 의제 중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 만들기'로 2002년부터 공립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설립되기 시작하며 민들레홀씨도 2007년에 문을 열었다.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학교도 많이 있어 주민들의 정보이용 욕구가 높지만, 공공성을 띤 문화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부족하던 상동마을에 민들레홀씨는 독서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문화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김현미 사서를 포함한 운영진들은 지역주민이 다채로운 독서 생활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누구보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상동의 이용자들을 보며, 저희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일들을 기획해서 운영해 볼 수 있기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민들레홀씨’는 바람을 통해 씨앗이 날아가 정착해 뿌리 내리고,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지역주민의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서관을 통해 각 가정과 지역사회로 퍼져나가 독서문화의 꽃을 피워내길 바라는 의미로 탄생했다.

이름을 따라가듯 도서관에는 매월 3천5백 명의 이용자가 방문할 만큼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민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만큼 독서 활동에 열의를 가진 이용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도서대출률도 높다.

“자료 이용이 높은 편이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장서를 구성할 때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별 자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도서관 공간 구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장서를 14,200여 권 보유 중이며 장서를 대상별로 배치하고, 서가 사이 공간을 열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프로그램실은 대면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다양한 장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영어 원서도 많아져 서가를 따로 비치했다. 주민들은 이것마저 부족하다는 듯 상호대차 또한 활발하게 운영된다.

“위치상으로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이지만 주민센터 내 자리하고 있어 운영시간과 공간제약이 생긴다는 점은 아쉬워요.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운영자와 이용자가 소통으로 일궈내는 공간

도서관은 아이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친다. 아동 대상으로 책을 매개로 한 글쓰기, 독서토론,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표현활동이 이뤄지며 방학을 맞은 아동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따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확산한 시점부터 가족이 책을 통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 ‘책 읽는 가족 독서꾸러미 Book

꾸 Book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캐리어에 주제별 그림책 10권과 그림책을 활용해 책 놀이 활동을 꾸러미로 꾸러 3주간 대여해 준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며 도서관 오픈 시간 30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릴 만큼 높은 호응도를 보인다.

김현미 사서는 “한 꾸러미를 만드는 데 6개월이 걸려서 호응에 비해 많이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첫 주제는 ‘가족’이었는데 이번에는 ‘환경과 이웃’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며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동 대상 외에도 성인들의 독서 흥미 유도 및 힐링을 위한 성인 공예, 미디어 교육,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과 학교도서관 연계사업을 운영 중이다.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족 다 같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민들레흙씨는 매월 주제 컬렉션을 통해 자료로 이용자에게 말 걸기를 진행한다. 주제 컬렉션은

월별로 주제를 정해 도서를 추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획이다. 2019년부터 꾸준히 제공한 컬렉션을 통해 사람들이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천하며 이용자와 더 많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새해에 용기를 주제로 블라인드북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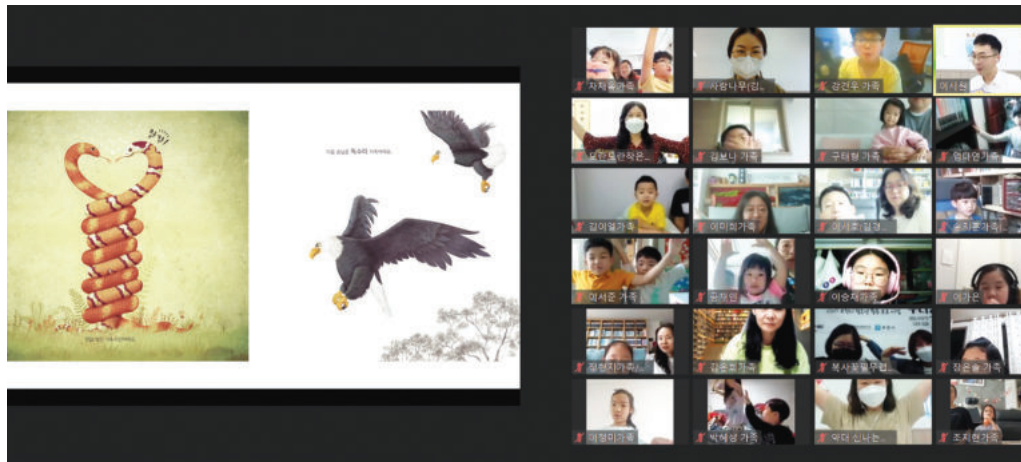
“최근에는 선거를 주제로 진행했는데 아이와 부모가 같이 참여해주시더라고요. 주제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어 숨어있는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니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기쁩니다.”

도서관의 자랑할 점은 자원봉사자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원봉사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방학에 서가 정리,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캠페인 활동 3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히 독서캠페인 활동은 청소년이 직접 북큐레이터가 돼 책과 콘텐츠를 소개하고, 그림책 보드 게임을 만들어 지역의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지만 곧 함께 지역의 독서콘텐츠를 만들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인 자원봉사자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도와주시는 덕분에 이용자들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죠.”

운영진들과 이용자의 열정이 넘치는 만들레쉴씨 작은도서관.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은 도서관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길 바라는 목표 덕분이다. 앞으로도 이 원동력으로 주민들의 문화 안식처로 빛나주길 기대해본다.



봉개동 문화 활동의 선두주자

봉아름작은도서관

제주도 제주시 번영로에 위치한 봉아름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제주시 동쪽 끝 마을에서 주민들은 책을 읽고 소통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운영

월수목금 14:00~21:00,
토일 11:00~19:00,
(화 휴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503, (봉개동) 1층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사랑방

봉아름작은도서관은 2000년도에 새마을문고로 재개관했다가 운영이 힘들어져 돌파구를 찾아 2017년 2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했다.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운영이 원활해졌고, 자연스럽게 제주시 동쪽 문화 쉼터로 자리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2층 건물에 현재 9천2백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갖추고 있다. 내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있다. 1층에는 책이 가득한 서가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분리돼있어 이용자들의 편안한 독서를 돕는다.



2층은 프로그램 운영과 열람실뿐만 아니라 새마을문고 시절부터 운영하던 공부방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으로 재편하며 정리하려 했으나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마을 학부모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이들

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마을문고였을 당시 같이 활동한 관장과 변경미 사서는 작은도서관을 유치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작은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 실무를 담당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문고 부회장을 맡았었는데 문고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다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자고 했어요. 관장님은 당시 마을 기관장을 맡고 계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2017년 2월에 작은도서관으로 개관 후 많은 주민이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을에는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 회사원들이 뒤섞여 있다.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이주민의 증가로 아이들이 많아지며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와중 봉아름작은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다.

관장, 사서, 간사와 8명의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19명이 현재 도서관을 이끌고 있다. 자원봉사

자 단체가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회의 시간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다. 운영진들은 주민들과 독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언제나 이용자들을 맞이한다.

“이용자 한 분 한 분 소중한 인연이에요. 도서관이 동부 중산간 지역을 통과하는 번영로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이용자들의 거주 지역이 넓은 편이죠. 한 달 살기로 오셔서 책 빌려 가시는 분, 어머니와 주기적으로 대출하러 오는 똥망똥망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 엄마를 기다리며 도서관에 머무르다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서 힐링하시는 것 같아 부듯합니다.”

봉개마을 주민들의 문화 놀이터

봉아름작은도서관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언제나 아이들과 어른들이 북적인다. 독서와 문학에 중점을 두고 유아동, 초등학생, 성인 골고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부지런한 운영진들의 노력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 2년 동안 운영한 ‘빅게임’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친구들과 만나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



올해는 보드게임의 캐릭터를 모방해 역할극을 만들어 즉흥극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극적으로 문제해결을 경험해 가상 세계와 상상하는 캐릭터를 통해 생각과 표현을 성장시키는 ‘월드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도 어느덧 4년째 진행 중이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평소 기획했던 프로그램 중에 엄선해서 신청하죠.”

어린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낭송 프로그램 ‘낭랑하게 낭송하라’, 성인 대상인 제로웨이스트 관련 ‘봉아름에서 한 걸음 더!!’,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한문교실’,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일주일 가득 채운다.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 어려울 때도 있다. 프로그램 기획 때부터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지만 막

상 모집하면 신청률이 저조해 봉사자를 통한 초등학교 홍보를 할 때도 있다. 최근에는 부모들의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성인 대상의 독서동아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물로 봉아름 문학회를 창단하는 등 독서문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주저함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어 도서관 운영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협회에서 워크숍과 간담회도 자주 개최해 사서들이 만나는 기회가 돼주죠. 특히 올해 4월 역량 강화 워크숍은 독서회를 만드는 데 자극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보호자와 같이 방문해야 하는 유아들을 위한 서비스도 포기할 수 없었다. 유아에게 도서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주변 유아 기관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올해로 4회째 진행 중이다.

작은공연예술가 단체와 협업해 주변에 있는 7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을 도서관으로 데려와 처음 2년 동안 그림책을 이용해 음악과 연극을 통한 다각적 놀이를 운영했다. 작년과 올해는 솜바꼭질을 매개로 제주어 노래책을 활용해 곱을락(솜바꼭질) 놀이와 자신만의 이야기로 1인 무대 만들기를 할 예정이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4년째 지원받는 중이다.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기획하는 데 참고가 되며 좋은 강사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변경미 사서는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도서관의 비전을 전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주민들의 사랑방이 돼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모여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 먼 미래에 도서관을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큰 역할이 아닐까요?”



봉개마을에 사는 지역민의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봉아름작은도서관. 때론 어렵고 고단한 운영이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주는 공간이 되기 위해 묵묵히 주민들 곁을 지킨다.

02 사립 작은도서관

Part.

I. 아파트 운영 작은도서관

송골우남 작은도서관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넓은세상 작은도서관

II. 교회 운영 작은도서관

별마로 작은도서관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

III. 단체 운영 작은도서관

물푸레 작은도서관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언니네작은도서관

IV.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행복한 산책

고래이야기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V. 특화 작은도서관

들고지작은도서관

오순도순 정겨운 마을 이야기가 들리는 곳

송골우남 작은도서관

송골우남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역 근처 아파트에 자리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입주민들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주민들 간의 소통과 문화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운영

월~금 15:00~22:00
(토, 일 휴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286(우남
퍼스트빌2차아파트) 관리동 1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운영의 힘, 자원활동가

아파트로 둘러싸인 화성시 능동에는 도란도란 정겨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다. 기분 좋은 소리를 따라가면 능동의 독서 문화를 견인하고 있는 송골우남 작은도서관이 보인다. 높은 아파트 사이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어른들은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다.

아파트가 지어질 때 함께 만들어진 도서관은 초반에는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다. 원래 어린이집이었던 공간을 도서관으로 바꾸고 여러 번의 리모델링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1만3천 여권이 넘는 소장 자료로 여느 큰 공공도서관 못지않은 장서 수를 자랑한다.



운영진들은 오랜 시간 도서관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원활동가'임을 깨달았다. 초반에는 주말에도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평일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유는 자

원활동가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도서관의 기동인 자원활동가들이 지치고 힘들다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주말 운영을 포기했다.

그 대신 직장인 이용자들을 위해 저녁 시간에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야간 운영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용자들의 반응은 더 좋아졌다. 야근이 잦은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혼자 집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운영에 전반을 책임지는 엄문주 관장은 1년 전 관장직을 맡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는 와중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든든한 자원활동가들 덕분에 원활한 운영을 이어가는 중이다.



“송골우남에 오기 전부터 주위에서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정말 괜찮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사를 결정한 이유도 도서관이 잘돼있다는 점 때문

이었어요. 그렇게 이용자로 열심히 도서관에 오가던 와중에 자원활동가로 봉사를 하게 되고, 어느새 관장으로 불리게 되었네요.”

송골우남의 자원활동가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가는 상시 모집해 현재 총 10명이 한 팀이 돼 도서관을 이끌고 있다. 최근 함께 하게 된 20대 활동가는 젊은 감각으로 도서관을 꾸미고, 60대의 활동가는 노련미 넘치는 운영 노하우로 도서관의 질을 높이고 있다. 활동가들의 연령대가 모두 다른 것이 폭넓은 운영을 가능케 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운영진과 자원활동가들은 체계적으로 업무를 나누고,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도서관의 크고 작은 일들은 나눈다. 운영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화성시 내 작은도서관 중 운영평가 결과 가장 우수하다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책과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마을 쉼터

활발한 운영의 또 다른 비결은 다채롭고 질 좋은 문화프로그램 덕택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나, 시 좀 쓰는 초등이야!’가 있다. 시 창작 수업을 듣고 꼬마 시인이 돼 자신만의 생각을 시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쓴 작품으로 책을 만들어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한다.

도서관 한 칸을 장식한 그림들은 미술 동아리 회

원들의 작품이다. 엄마들과 직장인이 모인 미술 동아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의 미술 관련 지식도 나누며 전문적인 동아리로 나아가고 있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은 ‘제로플라스틱 캠페인 : 일상에서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이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플라스틱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 천연비누 등을 함께 만들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했다.

작년에는 화성시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급변하는 기후의 심각성을 토론하고, 대

응책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우리 지구! 아름다운 우리 친구’, 맞춤법을 공부하는 ‘나, 책 좀 읽는 초등이야’, 누구나 갖고 있는 SNS 활용법을 알려주는 ‘슬기로운 SNS, 돈이 되는 취미 생활’ 등을 운영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동시야 놀자, 통기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일주일을 가득 채운다. 저녁 운영으로 직장인들도 편안히 이용하고, 도서관 한 칸에는 칸막이가 있는 독서실도 마련해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용도 돕는 등 송골우남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으로

송골우남 작은도서관이 지금의 문화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자원활동가들의 열정과 주민들의 관심 덕택이었다. 여느 작은도서관처럼 인력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금처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나갈 생각이다.

“도서관이 입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는 것이 운영진들의 미래이자 목표죠. 자랑스러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장서 재고조사 등 바쁜 날의 연속이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보람차요. 모든 입주민들이 도서관을 가장 자랑스러운 공간

으로 여기게 되는 그 날까지 지켜봐 주세요.”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운영진들. 활동하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해 더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마을공동체의 역할부터 지역 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부흥해서 마을이 조금 더 따사롭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세상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운영진들은 바란다.



자원활동가들의 열정에서 피어난 도서관 문화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작은도서관이다. 1993년 분당구가 개발됨과 동시에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은 만들어졌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자원활동가들을 거쳐 현재의 푸른마을로 자리 잡았다. 자원활동가들의 소중한 땀방울로 수내동의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을 만났다.



운영	주소	유형
월~금 11:00~17:00, 토 14:00~16:00, (일 휴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백현로 227번지 (쌍용A단지내)	사립 작은도서관

분당구 작은도서관들의 터줏대감

분당구 작은도서관의 역사는 아파트와 함께 시작한다. 분당이 신도시로 개발됨과 동시에 1991년부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당시 입주와 맞물려 작은도서관도 함께 지어졌다. 이때 분당구에서 최초의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이다.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은 1993년 당시 새마을문고로 문을 열었다.

초반에는 하루 운영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특성상 입주민들의 기증도서 서가의 대부분으로 권수가 적었고, 자원활동가들도 적어 운영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활동가들이 많이 유입되던 2004년에 푸른마을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이용자들이 ‘오고 싶은 질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도서관을 새로 꾸미고 서가를 재정비했다.

2004년부터 도서관 운영을 함께한 송은화 관장은 봉사자로 시작해 어느새 관장까지 맡게 됐다. 2007년 시의 정책에 따라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자리매김했다.

“푸른마을 아파트는 총 2,598세대로 분당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예요. 도서관에는 1천5백 세대 이상이 가입돼 있는데요.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도서관 문을 여는 것처럼 입주민들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도서관은 입구부터 이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리동네 예술정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입주민들이 직접 가꾼 식물들이 도서관 마당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정원에 온 듯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잘 가꿔진 나무들이 이용자들을 반긴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빼곡한 서가가 눈에 띈다. 운영진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심 끝에 슬라이드형 서가를 도입했다. 주기적으로 도서를 정리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운영하다보니 서가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슬라이드형 서가를 도입하고 더 많은 책을 능률적으로 꽂을 수 있었다.

현재 도서관을 이끄는 자원활동가들은 약 30명이다. 전입전출로 그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도 있지만 항상 20~30명 정도의 평균을 유지하고 있

다. 운영진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시민을 키워내고, 주민들과 독서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오늘도 이용자들을 맞이한다.

“자원활동가들은 보통 자발적으로 오세요. 이사를 오고 동네를 둘러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도서관의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을 보고 많이들 지원해주세요. 이곳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멀리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계속 함께 해주신답니다.”

튼튼한 운영의 비법은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운영 덕분

푸른마을이 오랜 시간 주민들 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체계적이고 적재적소에 인력들을 배치하는 운영 방식 덕분이었다. 관리팀, 도서팀, 문화·홍보팀으로 나누어 부서별로 업무를 진행한다. 관리팀은 전반적인 재무 관리와 연체자 관리, 비품 구입 등을 맡는다. 도서팀은 도서 선정, 폐기, 도서 관련 행사 기획,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 문화·홍보팀은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를 만들고, 강좌와 동아리 운영을 위해 강사를 섭외하고 각종 행사를 총괄한다.

자원활동가들은 각 부서의 업무 상황과 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엔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틈틈이 단체 SNS 채팅방에서 운영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한다.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이 오랜 시간 이용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던 건 모두 자원활동가들 덕분입니다. 업무 외에도 건강한 조직,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을 위해 전시회 관람이나 소규모 모임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다채롭고 알찬 문화프로그램도 이용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 사업 외에도 지역의 수련관, 공공도서관에서도 사업을 지원받는다. 운영진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지원하기도 하고, 발로 뛰며 유익한 사업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동아리 모임도 활발하다. 그림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림책 동아리, 전시회 탐방 등을 함께 가는 동아리, 뜨개질 동아리, 영어 원서 읽기 동아리, 아로마 테라피 동아리 등이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대부분의 동아리는 이용자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졌다. 운영진은 이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동아리로 만들거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현재는 하지 않지만 운영진들은 다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이용자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에 도서관에 새 책을 기증하는 이벤트다.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도서에 부영이 도장을 찍고 기증자의 이름을 남겨준다. 책을 읽는 이용자들은 그 책을 누가 기증했는지 알게 되고, 이용자들도 종종 자신이 기증한 책을 보러온다. 현재 여러 상황으로 중단되었지만 운영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방학에는 아이들을 위한 출석 도장 이벤트, 보드게임, 팝업북 만들기, 그림책 수업 등 도서관에서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에게 푸른마을은 조용한 아파트 단지 속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장이다.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 작은도서관으로

푸른마을이 오랜시간 주민들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자발적으로 열성 넘치게 도서관 운영을 도맡아주는 자원활동가, 여러 방법으로 재능기부 해주는 입주민, 매일 같이 들려 열심히 책을 읽고 또 빌려 가는 아이들까지 이 모두가 푸른마을의 지금을 있게 한 힘이자 원동력이다.

운영진들은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 신생 작은도서

관 등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아파트에서 새롭게 입주가 시작되고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푸른마을을 찾는다. 도서관을 둘러보며 노하우를 전수받고 각종 아이디어도 벤치마킹해간다.

“저희는 운영일지, 회칙, 운영메뉴얼, 소식지 파일 등 멘토링하는 작은도서관에 그대로 다 공유하고 있어요. 운영 초반에는 뭐든 어렵잖아요. 푸른마을도 그런 시절을 거쳐 여기까지 왔으니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또 멘토링 받은 도서관이 잘 성장하면 보람도 있구요.”

분당구의 가장 역사가 깊은 작은도서관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펼치고 있는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때론 어렵고 고단한 운영이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주는 공간이 되기 위해 묵묵히 주민들 곁을 지키며 열심히 지키고자 한다.

“가끔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열정적인걸까 묻곤 해요. 문득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들이 생각났어요. 정말 간단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이용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사람을 반겨주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열정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도서관에 오는 것만으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도서관에는 넓은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넓은세상 작은도서관

경기도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1호로 선언한 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평생 꿈을 키우는 마을로 발돋움한 광명시에는 주민들이 함께 일궈나가는 문화 공간인 넓은세상 작은도서관이 있다.



운영

월~금 14:00~18:00,
토 14:00~16:00
(일 휴관)

주소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38(고충주
공아파트) 관리동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숲과 맞닿은 작은 공간에서 모두를 환대하다

마을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들어가다 보면 화려한 도시와는 점점 멀어지고, 푸릇한 초록색 숲을 만날 수 있다. 커다란 나무와 활짝 핀 꽃들 사이를 지나 오늘의 주인공인 넓은세상 작은도서관을 만났다.

넓은세상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광명시 최초의 작은도서관이다. 마을의 부녀회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을 고민하던 중 도서관 설립이 결정됐다. 1999년 기증도서와 지역 새마을문고의 도움을 받아 야심 차게 문을 열었다. 열심히 운영하던 중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갈등으로 부녀회가 해산되면서 도서관 문도 그만 닫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도서관이었으므로 주민들은 아쉬워했다. ‘누군가 도서관을 이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마을에서 계속 논의됐다. 넓은세상 초기부터 운영을 함께한 정인애 관장이 운영의 전반을 맡게 되면서 도서관은 다시 문을 활짝 열었다.

“도서관이 폐관됐다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불신도 있어 재개관 당시 이용률이 적었어요. 떠나간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주민들이 다시 도서관에 오기 시작할 때 정말 누구든 환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해드렸어요.”

얼핏 들으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지는

‘넓은’세상과 ‘작은’도서관. 도서관 이름에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주민들 공모로 선정한 도서관명은 ‘넓은 세상이 이 작은 도서관에 모두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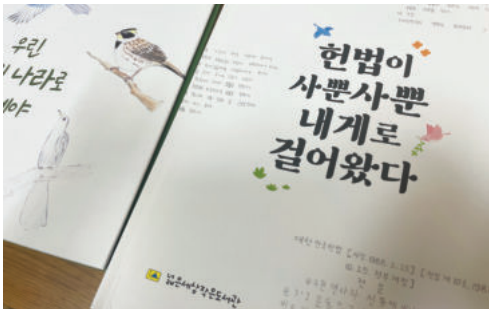
“옛날에는 도서관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넓은 세상은 그 이름대로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수많은 봉사자의 열정과 땀으로 힘차게 운영해 온 도서관은 올해 22주년을 맞았다. 넓은세상은 15명의 봉사자가 이끌어난다. 매달 회의를 하며 소통하는 등 도서관 운영은 매일 바쁜 일상의 연속이다. 하지만 운영진들은 ‘주민들의 즐거운 문화 공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조금 더 재미있는 공간 만들기에 열심이다.

넓은세상이 사랑한 인문학과 예술

서가에는 총 1만7천여 권의 책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데 그 중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분야가 유

난히 눈에 띈다. 운영진들이 ‘도서관이 사랑한 인문학과 예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도서관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정치, 사회학, 철학 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인문학 또는 예술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심은 있지만 공부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인문학과 예술을 매개체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2021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헌법이 사뿐사뿐’은 넓은세상에게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데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주민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며 헌법의 의미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서든 헌법을 썼다. 이렇게 쓰인 헌법들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운영진들은 책에서 그치지 않고 넓은세상만의 또 다른 발자취를 남기기로 했다. 바로 헌법송을 만들기로 한 것.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탄생한 헌법송 ‘이 땅에서’는 제헌절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국민들이 헌법의 역할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들이 쓰고 불러보니 헌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헌법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헌법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넓은세상만의 방식으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7년째 운영하는 마을음악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매년 주민들의 정서와 공감대에 맞는 음악들을 연습해 도서관의 악기동아리와 뮤지션들이 공동연주회를 열고 있다. 바이올린부터 기타, 클라리넷, 오카리나, 리코더 등 주민들의 숨겨진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이다. 연주회에서는 넓은세상이 직접 제작하고 작사한 노래들을 발표하기도 한다. 2019년에는 운동주 시인을 기리며 제작한 곡 ‘시인의 꿈’을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목소리로 직접 선보였다.

2020년에는 주민들과 의미 있는 한 권의 책을 썼다. 숲과 산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새들을 그리고 색칠한 「우린 새들의 나라로 갈테야」를 만들었다. 새들을 관찰하며 세밀화를 그리고 생태계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새소리를 녹음하고 촬영해 주민들과 함께 시청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넓은세상의 의미 있는 기록 남기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매년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문집을 발간한다. 주민들이 직접 일상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어떤 분야든 상관

없이 산문, 시, 서평 등의 글을 모아 엮는다. 다양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실린 문집은 마을의 역사를 보여준다. 올가을에도 문집 발간을 앞두고 있다.

“마을음악회와 문집 발간은 넓은세상이 계속 끌고 갈 일이에요. 매년하고 있는 일이지만 항상 다른 이야기와 음악들이 생겨나요. 주민들이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이겠죠. 마을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만들어 내고 싶어요.”



독서동아리도 활발히 운영한다. 2013년부터 시작한 ‘사서고생’은 아주 어려운 책을 함께 읽고 소감을 얘기하는 독서동아리다. 갯년기 여성들의 모임 갯년기협회도 눈여겨볼 만하다. 회원들은 책을 읽고 어디에도 털어놓기 어려웠던 마음을 나누고 응원해주며 따뜻한 정을 쌓고 있다.

이외에도 넓은세상이라는 이름에 발맞춰 다양한 활동을 한다. 조금 더 사회와 세계를 향한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한다. 환경,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호 활동도 하고 있다. 세제를 줄이기 위해 수제 주방세제를 함께 만들고,

삼베실로 세제 없이 설거지할 수 있는 수세미를 제작한다. 운영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특별하다”라고 말한다.

넓은세상은 공정무역 실천기관으로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돕는 공정무역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무역 옷감으로 조끼를 만들고 함께 입고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등 공정무역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우리끼리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모여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넓은세상의 모토가 느껴진다.

넓은세상의 손과 마음이 퍼지는 세상을 꿈꾸며

광명시의 가장 역사가 깊은 작은도서관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펼치고 있는 넓은세상 작은도서관. 정 관장의 식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은 주민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건 참 재미있어요.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고 행복해요. 어떤 성과와 평가보다도 주민들이 좋아한다면 저는 언제든 문을 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넓은세상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 해요. 먼 미래에는 공정무역도시와 결연 맺어 도서관에 그 나라의 아이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웃음) 넓은세상 작은도서관은 넓은세상의 손과 마음이 퍼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요.”

영월군의 별들이 반짝이는 공간

별마로 작은도서관

별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강원도 영월군에 가면 낭만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 있다. 반짝이는 사람들의 작은 쉼터, 별마로 작은도서관. 영월을 폐광 지역 근처의 이 독서문화 공간에는 책이 있고, 이웃이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다.



운영

화~금 14:00~17:00,
토 10:00~17:00
(일, 월 휴관)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47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독서 문화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을 뜻하는 별마로 천문대는 국내 최대 규모로 반짝이는 별뿔별은 물론 영월의 야경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별마로’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영월읍 내에는 또 하나 있다. 바로 별마로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여 있는 길목에서 아이들을 맞이한다. 근처에 4개의 학교가 있지만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단비 같은 선물이었다. 아이들이 별처럼 아름답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직접 조성했다.

면적은 108㎡(약 33평), 현재 총 장서는 5천여 권으로 작지 않은 규모를 자랑하며 2018년 4월 10일 문을 열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빼곡한 서가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운영진들은 도서관이 낯선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그

림책, 청소년 도서를 중심으로 서가를 구성했다. 밝고 아늑한 분위기의 도서관은 독서 욕구를 절로 불러일으킨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별마로에 오면 절로 책 속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한다.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 3시 즈음, 도서관에서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학원이 아닌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도 보고,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알찬 방과 후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간다.

오다가다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던 마을의 어르신들은 어느새 도서관 지킴이로 별마로의 일손을 돕는다. 틈틈이 책 정리는 물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별마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서관 운영의 전반을 맡고 있는 박진홍 별마로 지키는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책 읽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사진보다 큰



감동이 느껴진다.”며 “별마로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을 추구한다.”

별마로에서 배우는 4차 산업시대

별마로만의 특별함은 바로 ‘스마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최신 교육시설이 부족해 디지털 분야의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코딩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2019년 삼성전자 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돼 전자 기자재 등을 지원받았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코딩 로봇을 구입해 별마로 코딩 교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영월군에는 전문 코딩학원이 없어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이었는데 별마로 덕분에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유익한 수업을 듣고 있다.

“폐광지역인 영월은 도시의 학생들에 비해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교육격차가 존재합니다. 별마로는 코딩을 특화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에서 스마트 시대를 이끌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싶은 바람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 교육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영월군의 관광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원했지만, 상가를 비울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운영진들은 직접 컴퓨터와 기자재를 갖고 가게로 찾아가 컴

퓨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컴퓨터를 직접 배우며 상인들은 성취감도 얻었다.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들이 많은 영월군과 관련된 역사 프로그램도 있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장릉의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단종의 역사에 관련한 책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생대 지질공원이 근처에 있어 생태 프로그램도 만나 볼 수 있다. 별마로는 해마다 영월군의 역사, 문화, 환경을 주제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독서토론도 진행한다.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나뉘어 운영하는 독서토론은 8주 동안 다양한 책을 읽는다. 인문 고전 도서를 읽고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



지역의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개관 이후 쉬지 않고 달려온 별마로 작은도서관. 지난해는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며 신생 도서관의 반란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영월군의 진로체험센터 우수 진로 체험처로 선정되며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미래를 이끌 스마트 리더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별마로는 박진홍 관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키며 열심히 운영 중이지만 전문 사서가 있었다면 도서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감출 수가 없다. 더 나은 작은 도서관의 미래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가 꼭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부딪힘을 느끼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작은도서관이 가져오는 변화가 항상 감사하다는 운영진들. 앞으로 별마로 작은도서관의 어떤 모습일까.

“도서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코딩 수업과 정보화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마음껏 큰 꿈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운영진들은 계속 관련 활동을 기획해 컴퓨터 교육을 확대해 나가려 해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배우기, 상인들의 컴퓨터 교육 같은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놓친 것들을 촘촘히 메꿔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이 책을 통해 성장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날 별마로 작은도서관. 앞으로도 마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돼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해본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도서관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은 경기도 군포시에 자리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사랑빛는교회와 함께한다. 이웃 주민과 봉사자의 여러 지원으로 사랑을 나누며 이용자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을 만났다.



운영

화목금토 09:00~18:00,
수 14:00~18:00,
일 (대출)13:00~14:00,
(반납)13:00~17:00,
(월 휴관, 점심 12:30~14:00)

주소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74번길 24,
(도마교동) 1-2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기는 도서관

조용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햇빛이 비추는 따스한 곳에 사랑빛교회가 있다. 알록달록하게 빛나는 그곳 1층으로 들어가면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은 2009년에 처음으로 사랑빛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출발한다. 2011년에 교회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담임목사의 의견에 따라 운영진이 힘을 합쳐 설립했다.

모두에게 활짝 문이 열린 사랑아이엔지는 2019년에 지역을 바꾸며 이용자가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현재는 5천 명이 넘는 이용자 수를 기록할 만큼 사랑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주로 아이들이 부모님과 손잡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끝나는 오후 시간대에 주로 이용

자가 있다.

사랑아이엔지는 이러한 이용자들을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도 많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만큼 아이들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가족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자랑으로 2층에 6개의 강의실을 프로그램 운영실로 사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강사도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지기도 하는 따뜻한 곳이다. 도서관 카페에 공지로 프로그램 정보와 신청, 동네에 재능 있는 사람을 구한다.

운영위원 6명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으며 사서 봉사자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봉사자, 노인 일자리 사업 봉사자로 나뉜다.

도서관 책임을 맡고 있는 유영이 관장은 "도서관 이름처럼 도서관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이용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지어질 만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

금까지도 도서관을 지속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랑으로 전달되는 재능

사랑아이엔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동아리가 다양하다. 여러 공예와 베이킹을 강사님께 배울 수 있고, 이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커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좋은 원두 구별하는 법과 집에 있는 도구로 할 수 있는 로스팅부터 블렌딩, 자신이 좋아하는 원두로 시연까지 한다. 누구나 바리스타가 돼 기술을 갈고닦으면 그 재능을 다시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밑반찬 만들기, 주방세제 만들기, 아빠

가 만들어보는 요리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과 동아리가 있어 취미 활동하기 좋다. 핸드드립 커피 동아리인 ‘쉴위 커피’, 어머님들이 주로 모여 즐기는 ‘퀵트 좋아’ 등 취미 생활이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모이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과 동아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먼 곳에서까지 오는 이들이 있을 만큼 만족도가 높다.

프로그램 운영에 재능기부 외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경기도우수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군포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경기도 평생학습 특화 사업, 경기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마을,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 교실에도 도움을 받는다.

군포시작은도서관협의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간담회와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나눈다. 신규 도서관을 위해 멘토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서대전, 책 축제 등을 통해 봉사하기도 해 지역



사회에 보탬을 더한다.

“혼자보다 함께가 좋습니다. 그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추며 간다면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미래로 전해지는 사랑

9천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만큼 기독교 도서도 새 신간에 꽂혀 있다. 그만큼 공공도서관에서 보기 어려운 책들이 많다. 따로 희망하는 책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 서적을 구비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많은 물질적 자원과 수고가 필요한데 사랑빛는교회는 이웃을 위해 그

것을 기꺼이 감당한다.

“10년 뒤에도 여전히 우리 도서관이 사람의 정을 느끼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이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책과 함께 피어나는 우리 동네 작은 정원

물푸레 작은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상가 건물이 즐비한 거리를 문화의 향기로 물들이는 곳이 있다. 지역 독서 문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물푸레 작은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 주택과 상가 지구가 혼재돼있는 공간 속에서 책과 사람이 모여 함께 성장해나가는 물푸레 작은도서관을 만났다.



운영	주소	유형
월~금 10:00~18:00, 토 10:00~14:00, (일 휴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7-1, (금광동) 2층	사립 작은도서관

금광동 일대를 독서 문화로 물들이다

2000년대 초반 금광동,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성들은 힘을 모았다. 엄마들을 필두로 2003년 성남여성회가 만들어지고, 2007년 여성회 회원들이 만든 물푸레 작은도서관이 개관한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른빛으로 변해 물푸레라 지었다는 물푸레나무는 튼튼하고 단단해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녔으며 또 다양한 약재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한다. 운영진들은 물푸레 작은도서관에서 시작된 독서 문화가 금광동 전체를 물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서관 명을 물푸레라 정했다.

도서관은 굽이굽이 높은 언덕 꼭대기에 문을 열었다. 운영 초반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다. 이들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던 중 재개발 문제

로 이전이 불가피해 지금의 공간으로 이사 왔다. 현재는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은퇴한 어르신들의 방문율도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전면이 통유리라 탁 트인 느낌을 주고 창문 앞에 놓인 초록빛 식물들까지 더해 독서의 맛을 한층 더 살려준다. 물푸레에서는 책과 함께 꽃들이 피고 지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물들이 도서관을 장식하고 있어 씨앗이 새싹이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과정까지 만나볼 수 있다.

초록빛 식물을 뒤로하고 도서관 깊숙이 들어서면 물푸레 아이들만의 아지트도 만나볼 수 있다. 원목으로 꾸며진 다락방에서 친구들과 간식을 나눠 먹고, 편안히 누워 책을 읽기도 한다.

도서관의 자랑은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운영진들이다. 운영의 전반을 맡고 있는 서향수 관장은 여성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물푸레까지 맡게 되었다. 서 관장은 “아이가 기저귀 쓸 때부터



와서 성인이 될 때까지 활동한 회원들이 많아요. 그동안 아이만 성장한 게 아니랍니다. 엄마들도 도서관을 운영하며 성숙해지고 강해졌어요.”라며 그간의 소회를 털어냈다.

엄마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며 15년간 마을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물푸레 작은도서관. 금광동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보물 같은 공간으로 오늘도 밝게 빛나고 있다.

‘가드닝’으로 꽃길에 가득한 마을

물푸레는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가장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금빛마을 걸어서 한 바퀴’가 있다. 마을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아늑한 쉼터를 조성하며 마을을 생기있게 바꾸는 프로그램으로 어느새 7년째 운영 중이다. 낙후된 공간이 많은 금광동에 쉬어 갈만한 공간을 만들고 힐링을 위한 꽃과 나무를 심는다. 삭막했던 회색빛 동네가 활기 넘치는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운영진들은 깊은 보람을 느낀다.



활기를 띠는 마을을 보며 도서관 회원들도 동네 가꾸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물푸레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알록달록한 페인트 칠을 한 나무 의자를 골목 어귀에 만들고, 횡간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심었다. 봉사단 덕분에 금광동 일대는 풀 내음으로 가득한 생기 있는 동네로 변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목하는 패션 아이템인 한복을 만드는 ‘생활 한복 만들기’도 눈여겨볼 만하다. 회원들은 직접 바느질을 하고, 재단해 만든 한복을 실생활 속에 착용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 한복이 아닌 편안한 생활 한복을 만들 수 있는 물푸레만의 색다른 프로그램은 많은 이용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3년 동안 함께 그림을 그린 미술 동아리도 물푸레의 자랑거리다. 회원들은 소소한 팝아트로 시작해 다양한 수채화까지 수준 높은 작품들을 그리고 있다. 또 전시회 탐방으로 미술적 지식을 쌓기도 한다. 열정적인 회원들은 경기도 제부도 그림 공모전에 참가해 선정되는 쾌거를 보여주기도 했다.

주 이용층인 여성들을 위한 동아리도 있다. 엄마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동아리, 인문학과 신비로운 타로를 함께 배우는 인문타로 동아리,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걷는 기행 동아리, 역사적 사실을 토론하는 역사 동아리 등이 활발히 운영된다.

운영진들은 마을 근처 상인들을 위해 희망 도서나 베스트셀러 등을 책 수레에 담아 전달하는 책 배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1인 점포가 많아 가게를 비울 수 없었던 상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비스다. 꽤 오랜 시간 책 배달로 상인들을 만나다 보니 고정 이용자도 생기고 이제는 직접 도서관을 찾아주는 주민들도 생겼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을 만난다. 성인 대상으로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세밀화 그리기, 식물을 함께 심는 식물 테라피,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양말목강좌, 가족공예, 도자기공예,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우쿨렐레 등을 운영한다. 어린이 대상인 보드게임, 역사 교육 등의 활동까지 도서관의 일주일을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운다.

안정적인 초록빛 물푸레를 꿈꾸며

이렇듯 역동적인 운영을 자랑하며 성남시 작은

도서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물푸레 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은 공모사업에 도전하거나 후원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기획할 때 예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주위에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임대료 상승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럴 때면 계속 구석으로 몰리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조금 속상하죠. 운영진들이 발로 뛰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가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때론 고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하기에 작은도서관은 주민들과 마을을 위해 꼭 존재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운영진들. 하루빨리 현실적인 사립 작은도서관 예산이 책정돼 걱정 없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초록빛 미래를 꿈꾸려 합니다. 물푸레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할 예정이에요. 어떤 것이든 물푸레와 함께라면 함께 해낼 수 있는 활기찬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수동의 마을 문화를 꽃피우는 시장 옆, 문화사랑방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백이시장 옆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이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며 책과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천여성회 남동구지부에서 조성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을 꿈꾸는 와글와글은 오늘도 사람 사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온다.



운영	주소	유형
월~금 09:00~18:00, (토일 휴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17 3동 201호(만수동, 창대상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이 와글와글해도 되나요?

장승백이시장은 지역의 초입에 장승이 세워진 마을이란 뜻의 '장승백이'에서 가져왔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늘 주민들을 지키는 장승백이시장은 남동구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친근한 상인들의 목소리와 복잡한 상가들 사이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새어 나오는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이 보인다.



2013년 10월 31일 문을 연 와글와글은 NGO 단체인 인천여성회 남동구지부에서 운영한다. 마을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회원들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적은 예산으로 소박하게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월세랑 관리비 부담이 적은 곳을 찾았고, 한 회원이 갖고 있던 책으로 서가를 꾸렸다. 운영의 전반을 맡은 구순례 관장은 남동구지부장으로 역임할 당시에 도서관이 만들어져 자연스레 관장직까지 맡게 됐다.

도서관명 '와글와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시장 안에 있으니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보다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이름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와글와글이라 정했다.

“운영 초반에는 조용한 도서관이 어떻게 와글와글할 수 있냐고 묻는 이용자들도 있었어요. 딱딱한 이미지인 도서관과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도서관엔 딱 맞는 이름이었어요.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언제든지 책을 읽고, 상인들도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했죠.”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운영 또한 단연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었다. 구 관장은 “여성들의 노동이 자꾸 자원봉사로 취급되는 것이 불편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통비 정도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분주한 시장 내에서 유유히 자리를 지키는 와글



와글작은도서관. 자못 정적인 공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신들만의 속도로 시장 안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도서관은 2019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전에는 서가도 얻어온 것을 썼고 겨울에는 연탄을 댔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을 해왔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의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사업을 후원받아 온돌을 깔았고, 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생기면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받았다.

와글와글은 시장 초입에 위치해 지역 주민에게 잠시 쉬어가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위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남동구 일대 자연을 수호하는 와글와글 생태 환경 지킴이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은 주민들과 알찬 일상을 함께 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상인들을 위한 책배달 등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유관 기관과 협업해 운영하는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이다. 근처에 장수천과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있어 생태 교육이 용이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태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지금, 알고 있어야 할 생태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한다. 또 실제 소래습지에서 아이들과 생태놀이를 하고 계와 조류 등을 관찰하며 자연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생태 환경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 보호를 위한 작은 행동을 한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제작하고, 인공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천연비누와 로션 등을 만들어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들과 전래놀이를 하는 ‘애들아 마을에서 놀자!’도 활발하게 운영한다. 도시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할 전래놀이를 하고 소감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다. 실뜨기,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등 부모 세대들이 즐겼을 놀이문화를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구 관장은 “단순한 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래놀이는 부모와 자녀를 잇는 매개

체가 되기도 한다.”며 전래놀이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했다.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 모임도 눈여겨 볼만하다. 페미니즘을 나누고 연대하는 페미니즘 동아리, 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는 건강 동아리, 공연도 보고 책도 읽는 문화예술 동아리, 그림책을 주제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그림책 동아리 등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채워주는 다채로운 동아리들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문화프로그램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관련 강좌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와글와글이 문화 공간을 넘어 여성들이 다시 한번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염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정을 기획, 운영한다.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마을박물관을 꿈꾸며

2013년에 개관해 올해로 9번째 생일을 맞은 와글와글의 앞으로 과제는 마을 박물관 만들기다.

마을과 시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마을 아카이브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게 운영진들의 바람이다.

“도서관이 바탕이 되어 마을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어요. 작은도서관은 마을 사랑방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사랑방 드나들듯이 사는 이야기를 풀어놓곤 하세요. 와글와글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기록하는 일을 해보려 해요.”

구성원들의 열정 넘치는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이지만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처럼 예산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다. 운영 초기에 건물 재정 문제로 큰 위기가 오면서 후원 주점을 운영하고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팔아 극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쉽지 않은 운영이지만 운영진들의 얼굴은 밝다. 도서관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운영진들. 앞으로도 장승백이시장을 지키며 마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을박물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공동체

언니네작은도서관

언니네작은도서관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서울여성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과 체험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운영

화~토 10:00~18:00,
(일월 휴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13 (대림동) 바우빌딩 502호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되자

대림동의 어느 한적한 주택가 속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곳이 있다. 아이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책을 읽고, 어른들은 삶을 나누며 어울리는 마을 사람들의 보물 같은 공간. 바로 언니네 작은도서관이다.



도서관은 2010년에 벌어진 어느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근처 신길동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8살 여자아이를 범인이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여성회와 주민들은 안전한 공간이라 생각했던 학교에서 벌어진 범죄에 크게 분노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벌였다.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주장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서울여성회는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만나고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보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

는 강연, 캠페인보다는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주민이 지속해서 모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여성회 회원들은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피켓과 안내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 도서관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시장은 물론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모두 다니며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재능기부 신청을 받았다. 그렇게 612명의 준비위원이 모여 공간을 청소하고, 각종 집기를 모아 2013년 12월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했다.

서울여성회가 갖고 있던 책 2천여 권과 기증도서 4천여 권이 모여 서가도 가득 채웠다. 도서관명은 친한 언니네 같은 도서관이라는 의미와 활동가들이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언니네'로 정했다.

2021년 9월 언니네는 세 번의 이사를 마치고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때 운영진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대로변, 넓은 주차공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등을 고려해 정했다. 더 많은 주



민이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심 끝에 현재의 곳으로 이전했다.

근처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많아 이용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이다. 운영진들은 엄마들에게 항상 이름으로 불러준다. 도서관에서만큼은 자녀의 엄마, 남편의 아내가 아닌 오로지 자신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니네는 '마을에서 노는 아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선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추구한다. 운영진들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생길 것이라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마을공동체가 탄생하는 공간이 언니네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도서관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언니네의 초록색 평등 세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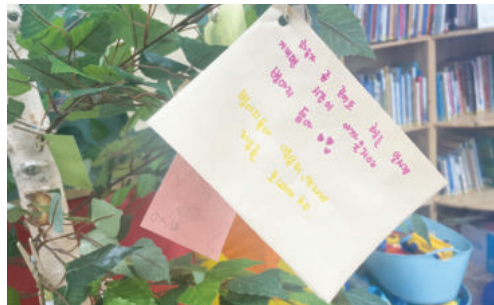
언니네는 서울여성회 부설기관이다. 서울여성회는 여성들의 자기 성장을 돕고 성 평등한 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운영진들은 도서



관 운영과 함께 성 인권 운동과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10월에 열리는 '북적북적 책축제'가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함께 예코백을 만들고, 비대면으로 성 평등 강좌를 들었다. 외에도 마을 공론장을 운영해 주민들과 다양한 교육 이야기를 나눴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좋을지 등을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매주 목요일 운영하는 '책읽어주는언니네'도 눈여겨 볼만하다.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 등을 주제로 관련 책을 읽고 아이들과 재미난 독후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손으로 무언갈 만들고 즐겁게 이야기길 나눈다. 언니네는 마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또래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쓰담쓰담 언니네'는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모임이다. 최근에는 아이와 함께 걸으며 쓰레기도 줍는 '줍깅' 활동

을 했다. 또 도서관에 모여 환경 관련 책을 읽고 초록빛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토론하기도 한다. 모임 외에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약산성 샴푸바, 천연비누 만들기, 제로웨이스트 교육 등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낭랑한 책소리’는 엄마들이 모여 그림책을 낭독하는 독서동아리다. 어린 자녀를 데려온 엄마가 낭독할 때면 다른 회원이 아이를 돌봐주고 안아준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

다’라는 말처럼 언니네 사람들은 함께 육아 품앗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빠들을 위한 모임도 활발하다. 집과 회사를 반복하는 아빠들에게도 동네 친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들과 책도 읽고 다양한 체험학습도 가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하고 엄마들은 잠시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아빠들은 아이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문화프로그램과 환경 보호 관련 강좌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지역의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개관 이후 쉬지 않고 달려온 언니네작은도서관. 그 노력과 열정이 빛을 발해 다양한 언론 매체에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등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금곡동 책 어울림터

행복한 산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행복한 산책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도심과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주민들은 책을 읽고 소통하며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운영	주소	유형
화~금 10:00~18:00, 토 10:00~16:00, (일월 휴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61, (금곡동) 2층	사립 작은도서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놀이터

행복한 산책 작은도서관은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싶었던 주민 한 명의 소망으로 시작됐다. 자신이 가진 책을 모두 기부하고, 어느 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책을 모았다. 부족한 장서는 다른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서가를 채웠다. 이렇게 한 사람의 염원으로 시작해 모은 책이 천 권이 넘어 행복한 산책을 개관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144㎡(44평) 규모에 현재 6천5백여 권에 달하는 소장 자료를 갖추고 있다. 내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책 읽기 좋은 책상이 가득한 자료실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강 의실까지 이용자들의 편안한 독서를 돕는다. 이외에도 도서관 곳곳에는 원화 아트 프린트가 전시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칠 통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세심함이 돋보였다.

도서관이 위치한 금곡동 근처에는 새로운 아파

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은 없었다. 2개의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어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와중 문을 연 행복한 산책은 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다.

도서관 이름의 행복한 산책에는 '걷는 산책, 내가 산 책, 살아있는 책'의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운영진들은 행복한 산책이 주민들의 독서 생활에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소망으로 따뜻한 뜻을 담았다.

주민들이 모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운영한 터라 개관 초기부터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뉴스 매체에도 소개되는 등 도서관은 빠르게 성장했다. 운영 전반을 맡은 김은경 관장은 평생교육업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넘치는 질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힐링형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를 전파하다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일궈진 행복한 산책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언제나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적인다. 방학 때 평일에는 책 읽는 아이들로 가득하고 주말에는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동아리들로 다채롭다.

부지런한 김 관장의 노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수원시에서 지원받은 양육자 평생학습프로그램 ‘숨더불어읽’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던 엄마들을 위한 힐링형 문화 프로그램이다. 책을 읽는 것은 물론, 명상과 요가도 하며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받는 꿈[읽.익.잇]다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림책을 배우며 그림책 활동가 공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과정을 이수하면 북아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경제신문을 읽고 자신이 선택한 기사를 소개하며 토론하

는 어린이경제신문동아리, 21세기 필수 교육 과목으로 손꼽히는 코딩 수업, 예술과 독서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동시/동화 등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일주일을 가득 채운다.

행복한 산책 서가는 도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외부관계자들은 분류를 권했지만 편하고 자유로운 도서관을 추구하는 행복한 산책은 책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놨을 뿐 어떤 라벨지도 찾아볼 수 없다.



“딱딱한 느낌의 도서관보다는 편하게 언제든지 책을 빼볼 수 있는 서가를 꾸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책을 보고 자유롭게 두고 가도 되는 그런 규칙 없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행복한 산책만의 특징으로 봐주시더라고요.(웃음)”

한 발짝 두 발짝, '사람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개관 3년 만에 금곡동의 독서문화를 주도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은 행복한 산책 작은도서관.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진들의 열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느 작은도서관처럼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바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1인 운영 도서

관이라는 것. 김 관장이 교육이나 회의 등의 일이 생기면 자원봉사자들이 채워주고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운영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 혼자 운영하다 보니 부족한 것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해요. 어렵고 또 어려운 작은도서관 운영이지만 도서관으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좋은 영향을 얻어간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누려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사람을 얻어간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렵니다.”

행복한 산책에서 인생을 산책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금곡동 주민들. 운영진들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사람 냄새 가득한 작은도서관을 만들며 계속해서 독서문화를 꽃피워갈 예정이다.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곳

고래이야기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는 주민들이 책을 매개체로 만나는 공간, 고래이야기 작은도서관이 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모두를 맞이하는 고래이야기 작은도서관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운영

월~금 13:00~18:00,
(토일 휴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효창맨손아파트) 효창맨손
아파트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주민들 손에서 피어난 문화의 새싹

고래이야기는 2008년 용산구청사의 이전 소식과 함께 출발한다. 텅 빈 구청사에 마을 사랑방 같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모이기 시작해 도서관 설립 운동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주민들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펼쳤다.



도서관 설립 이야기가 대두될 무렵,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이로 인해 구청사에는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서관 설립을 고민했다. 이때 주민들의 서명 운동을 알게 된 출판사 고래이야기가 사무실 일부를 도서관 공간으로 내주며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는 새로운 독립 공간으로 이전해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고래이야기의 이용층은 주로 어린이들이다. 호

창동에는 유난히 다자녀 가구가 많은데 마을에 삼신 할매가 산다는 재미난 설화가 있을 정도다. 또 도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주민들과 친구네 드나들 듯이 편하게 방문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서가에는 어린이 책이 가득 꽂혀 있다. 최근 이슈인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부터 창작동화, 그림책 등이 주를 이룬다. 또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호창공원이 근처에 있어 관련 역사 도서들도 만나볼 수 있다.

2013년에는 고래이야기 민간단체를 출범해 도서관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공간,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많은 운영위원과 봉사자들의 열정과 땀으로 일궈진 고래이야기는 오늘도 활짝 열려있다.

아이들의 숨겨진 장점을 찾아내는 곳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와~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니? 재밌었어?”



다정하게 안부 인사를 물으며 운영진들 덕분에 아이들은 도서관을 친구처럼 여긴다. 고래이야기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도서관이다. 특히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 중에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 한 명을 위해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서관에서 해줄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다른 또래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어요. 아이가 도서관에 올 때마다 점점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정말 보람 있는 순간이었어요.”

운영진들은 아이들 모두 놀라운 장점을 갖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뿐이라며 고래이야기에서 하는 활동들로 숨겨진 장점들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한다.



“단편영화 만들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의 소중한 장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체력이 좋아서 카메라를 잘 들고,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슬라이드를 치는 아이까지 발견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모두 생각과 장점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키워줘야 하는 곳이 바로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고래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책과 놀거리가 가득한 놀이터로, 어른들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1 용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인 ‘지구를 살리는 고래’는 도시재생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재료들이 자연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공부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얼마 전에는 참치를 잡기 위해 부수 어획으로 죽는 생선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자연에 어떤 나비효과가 생기는지를 배우고, 대처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 대출 서비스 ‘고래 책 꾸러미’도 운영한다. 아이들에게 요즘 관심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관련된 책과 소소한 선물인 간식을 함께 주는 서비스다. 운영진들은 작은 선물이지만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 기획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적 공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해설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근현대사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효창공원에서 순국선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공투사 위령탑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배운다.

이외에도 합창단, 도란도란 독서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마을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안전한 마을이 되도록

운영진들은 주민들과 고래이야기만의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도서관에 와서 꼭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적 문제를 토론하고 담론을 나누는 공간을 추구한다.

“세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고래이야기는 조금 더 괜찮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아름답진 않아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키워 내려 해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오늘도 건강한 담론을 나누는 효창동 사람들. 운영진들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독서문화를 꽃피워갈 예정이다.

“어떤 이용자가 고래이야기에 오면 마음이 안전하다는 걸 느낀다며 마을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딪힘과 동시에 도서관이 계속해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래이야기는 계속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민들과 안전하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골목에 꽃피운 독서 문화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자리해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작은도서관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며 책과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운영진들과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서관이다.



운영요일, 시간안내
매주 화~금(오전)
매주 토, 일, 월요일
공휴일 휴관

운영	주소	유형
월~금 13:00~18:00, (토일 휴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61, (금곡동) 2층	사립 작은도서관

미래를 이끄는 꾸러기들의 쉼터

고요한 듯 소란스러운 어느 골목가를 거닐다 보면 아이들의 기분 좋은 재잘거림이 들리는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이 있다.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 설립이 본격화될 무렵, 산곡동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도 도서관이 있었으면 했다. 주민들이 고민하던 중 신협이 지금의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줘 도서관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2003년 첫발을 땀 청개구리는 주민들이 모여 작은 것부터 채워나갔다. 여러 곳에서 도서 기부를 받고 후원자들도 모여 현재는 총면적 100㎡(30평)에 장서 8천8백 권이 서가를 가득 채우고 있다. 다른 공공도서관에도 없는 책이 있을 정도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개구리는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나갔다.

“도서관명인 청개구리는 어떤 뜻인지 많이들 궁금하세요.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웃음) 도서관이 워낙 엄숙한 공간이라 반대되는 기

발한 이름을 생각하다가 짓게 되었어요. 청개구리 같은 꾸러기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죠.”

장서는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답게 어린이, 청소년 도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직업에 관련된 도서, 만화책 등을 고루 구비하고 있다. 원래 만화책은 파손 우려로 대여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대출도 하고 있다. 아이들과 성인 모두에게 인기인 웹툰 도서들도 꾸준히 갖추고 있다.



청개구리 내부는 햇빛이 잘 들어와 아늑한 느낌을 준다. 오전 시간엔 학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소모임 장소로 쓰인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엄마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찾고, 교류하며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든다.

오후가 되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고, 친구들과 간식을 나눠 먹는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 정거장처럼

쉬었다 가기도 한다. 청개구리는 산곡동 주민들의 쉼터 역할은 물론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민들과 상인들의 신나는 잔치 한 마당 '화랑북로 축제'

청개구리는 시장 안에 위치했다. 도서관 이용자는 대부분 상가 사람들과 근처 주민들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변화가였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대형 마트가 문을 열면서 상권들이 많이 쇠퇴했다. 청개구리는 골목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매년 7월부터 운영진들은 눈에 띄게 바빠진다. 바로 10월에 하는 화랑북로 골목 축제 때문이다. 마을 관련 단체인 이웃사랑회, 인천여성회, 상곡 3동 어린이집 등에 연락을 취해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어떤 형태의 축제를 할 것인지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한다.



“초반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시장 한 가운데 부스를 설치하고 무대를 꾸리다 보니 장사에 방해된다는 분들도 계셨죠. 주차돼있는 차들도 모두 빼야 하니 마을 사람들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희는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웃음) 5회 정도 진행하고 나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마을 노래자랑도 참여해주시고, 가게에서 파는 걸 선뜻 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참 감사한 순간이었죠.”

축제 날이 되면 주민들과 상인들은 일제히 골목으로 모인다. 축제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상인들이 내놓은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돼있다. 도자기체험, 바디페인팅, 아나바다 장터 등 약 30~40개의 부스가 축제를 꾸민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교류하며 마을공동체라는 큰 보물을 얻는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축제를 기획했다. 참여하는 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웃사랑회에는 송편과 김치를 만들어 이웃 주민에게 제공하고, 보호센터는 장애인들과 수경 화분을 만드는 뜻깊은 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로 계속 지쳐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전의 축제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올해는 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상

황이 아니니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를 마쳤어요.”

축제 외에도 청개구리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둔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고, 환경 동아리도 운영한다. 회원들은 초록빛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최근에는 부평역에서 탈석탄 1인 시위를 하는 운동가와 매주 목요일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에 미세먼지와 매연의 약 50%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어요. 석탄을 이용하다 보니 공기 오염이 심각해요. 이런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또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운동도 함께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대체 에너지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 활동들도 활발하다. 바느질과 뜨개질로 힐링을 도모하는 자광찾(자수해서 광명 찾자), 타로를 공부하는 타로 모임, 다양한 일회성 강좌 등 이용자들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또 책을 신고 시장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을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운영위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운영

한다. 실험에서 공간을 제공해 월세 부담은 덜었지만 위원들과 활동가들에게 일정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미안할 따름이다.

“활동가들이 대부분 엄마고 여성이에요. 항상 여성의 인력을 자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조금의 차비라도 드리고 싶은데 후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자원활동가들에게 차비나 점심값이라도 줄 수 있길 바라요.”



책 문화를 보급하는 도서관의 역할 뿐 아니라, 책을 매개체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마을의 문화거점을 지향하며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나갈 앞날을 기대해본다.

“20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청개구리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덕분에 대출·반납도 높은 편이라 부듯하죠. 청개구리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찾고 또 고민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어요.”

골목에 꽃피운 독서

들고지작은도서관

경기도 의왕시에는 도자기 향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바로 국내 유일 도예 특화 작은도서관인 들고지작은도서관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휴대폰 대신 책을 읽고, 점토를 만지며 알찬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운영

월화금토일 12:00~18:00,
목 10:00~18:00,
(수 휴관)

주소

경기도 의왕시 교동길 27, (이동)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책과 연결한 예술로 통하다

도심과 살짝 떨어진 의왕시의 작은 마을에 들어서면 들고지작은도서관이 안내된 팻말이 보인다. 굽이굽이 초록 숲길을 지나면 정원 같은 마당이 보인다. 잘 가꿔진 산책로를 오르면 오늘의 주인공인 들고지작은도서관이 고개를 내민다.



크고 작은 조각상들이 맞이하는 들고지는 온성우 관장과 김승호 부관장의 염원이 담긴 공간이다. 미술을 전공한 김 부관장은 원래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의 제안으로 도서관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원래는 아이들과 책을 읽고 작품을 만드는 형태의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공방에 오신 관장님이 제가 책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걸 보시고 도서관 운영을 추천하셨어요. 제안을 받고 고민해보니 기획, 공연, 전시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요. 들고지의 시작이었어요.”

운영을 결심하고 책을 모으기 시작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기준인 천 권을 채우기 위해 여러 곳에서 기증을 받아 서가를 완성해나갔다. 도서관명은 들고지로 도서관이 위치한 마을 이름에서 가져왔다. 마을을 아우르는 도서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고지라 정했다.

“책을 2년간 모았어요. 지인이 여러 권의 논술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겠다고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어차피 들고지에 와서 읽으면 되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유치원 원장님이 3백여권의 책을 기증해주셨어요. 이때 정말 많은 걸 느꼈죠. 이웃들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도서관에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모여 들고지는 2019년 5월 도예 특화 작은도서관으로 문을 열었다. 운영진들은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도예와 예술을 누구나 편하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화 분야로 정했다.



도서관은 모두 2층으로 구성돼있지만 열람실, 프로그램실 등의 구분은 하지 않는다. 운영진들은 도서관 건물 어디서든 주민들이 편하게 책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2층을 오르는 계단에도 책이 가득 꽂혀 있다. 이용자들은 계단을 오르다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바로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한다. 가끔은 도서관 앞마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도서관을 추구하고 있다.

들고지는 도예 특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술 도서 구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구하기 어려운 절판 도서들은 중고서적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고, 도서관에 도움이 될만한 책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운영진들의 이런 노력으로 약 5천 여권의 양질의 책이 서가를 가득 채웠다.

미술관 같은 도서관, 도서관 같은 미술관

도서관에 들어서면 수많은 조각상과 여러 도예 작품이 눈에 띈다. 김 부관장의 작품은 물론 이



용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도자기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들고지는 도예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의왕인생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꽃마루떡 만들기’와 ‘나도 조각가’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흙을 만지고 다듬어 그릇을 만들었다. 같은 수업을 들었지만 모두 다른 모양의 그릇을 보며 주민들은 삶의 이야기꽃을 피운다. 들고지로 인해 조용한 마을이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며 운영진들은 깊은 보람을 느낀다.

2021년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한 마을 꾸미기 ‘물고기정원 공공예술프로젝트’도 눈여겨 볼만하다. 흙으로 물고기를 만들어 마을 곳곳을 꾸미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참가하고 있다. 작은 물고기는 문패처럼 각자 집 앞에 걸고, 물고기 솟대는 장승처럼 마을 입구에 세워둘 계획이다.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참여



해주시기를 권유했어요. 도서관이 어렵고 불편한 곳이라는 인식이 많으셔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다들 넘치는 열정으로 열심히 물고기를 만들고 계세요.”

어린이를 위한 도예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책을 읽고 관련 독후 활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김 부관장이 기획하고 운영한다. 도예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기획의 시작은 책이에요. 혼자 서가를 돌아다니다가 책을 펼쳐보고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과 놀아볼까 생각해요. 도서관에 꽂힌 모든 책이 저에겐 자료인 거죠. 표정에 관한 책이라면 표정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며 아이들과 소통하고 생각을 나눕니다. 이처럼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책 한 권이에요.”

이러한 노력으로 주민들은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예술과 도예를 배우며 색다른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거창하진 않아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책과 연결한 예술로 통하다

들고지는 도서관을 책 읽는 공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미술관처럼 전시회, 공연 등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꿈꾼다. 갤러리 등이 사라지는 추세로 전시할 기회가 적어진 작가들을 위해 전시회를 열고, 공연도 해볼 계획이다. 운영진들은 들고지가 예술인들을 위한 하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금 더 시골벽적인 도서관을 꿈꿔요. 도서관이 이런 공간일 수도 있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누구나 다 꿈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무언갈 만들고 싶고 어떤 것에 힘껏 몰입하고 싶지만 기회와 시간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들고지에서 지금까지 못하셨던 모든 활동을 해보셨으면 해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자 특화 도서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들고지작은도서관.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성장해나갈 들고지작은도서관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03 알록달록 도시 책축제로 물드는 문화

Part.

서울국제도서전

도서관주간

경의선 책거리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제

2021 서울국제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은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했던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출판사, 저자, 독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책 축제다. 책이라는 큰 그릇에 담을 내용을 만드는 사람들과 책을 읽는 사람들, 작가, 학자, 예술가, 편집자,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즐거운 마당이 펼쳐진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제, 2021 서울 국제도서전에 다녀왔다.

1995년부터 국제도서전으로 위상을 바꾸고 축제에 더해, 한국의 책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의 책을 한국에 알리는 문화 외교와 무역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문화적, 예술적, 학문적 성장과 더불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시아의 대표 도서전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매년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와 함께 해외도서전의 한국관을 운영하고 주빈국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세계를 서울에 모아 교류하고, 세계로 나가 한국의 책과 문화를 소개한다. 2020 서울국제도서전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여파로 분산형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사가 혼합된 행사를 개최해 국내 최

초 온·오프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 출판계가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을 총동원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하며, 새로운 도서전을 선보였다. 2021 서울국제도서전 주제 ‘굿닛’은 끊어짐과 이어짐을 아울러 뜻하는 우리 옛말로 코로나19 사태로 끊어진 일상과 다시 이어져야 할 일상을 담아낸 주제다.

올해 도서전은 코로나로 인해 규모가 줄어 기존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서울 성수 에스팩토리로 변경했고, 참여 출판사는 모두 75개사로 기존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 진행했다.

가이드북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A동 1층부터 관



람을 시작했다. A동 1층에는 특별전시 <파동>이 진행됐는데 요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웹툰과 웹소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별전시 <파동>은 원천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확장하면서 다른 미디어와 만나 확장되며 장르가 된 웹툰과 웹소설을 조망한다.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과 작가들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20년의 역사를 만들어온 연대기, 그리고 우리가 작가들에게 건네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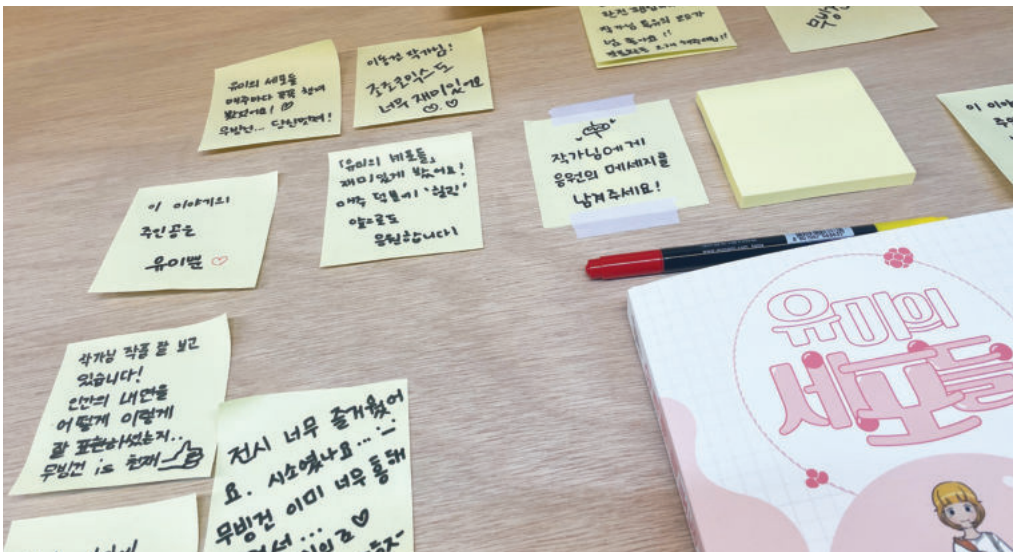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툰’ 작가들의 작품과 인생 이야기를 살펴봤다. 편리한 접근성을 장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웹툰을 만나볼 수 있었다.

웹툰은 다양한 창작물의 원작이 되기도 한다. 최근 유명 플랫폼 사이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 스위트홈’도 김칸비 작가의 웹툰 ‘ 스위트홈’이 원작이다. 이외에도 ‘유미의 세포들’, ‘녹두전’ 등 다양한 드라마들이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독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쪽지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많은 메모지가 붙어있어 웹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전시장 한 칸에는 웹툰 자판기가 준비돼있다.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킁키 작가의 웹툰이 나오는데 담담하면서도 분명한 위로가 느껴지는 내용이였다.

2층에서는 주제전시 <굿잇 : 뉴 월드 커밍> 진행



해 서울국제도서전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었다.



〈굿닛 : 뉴 월드 커밍〉은 지난 70여 년간 끊어지고 또 이어진 서울국제도서전 역사를 최초로 돌아보는 아카이브 전시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역사는 국내에서 유례없이 긴 역사를 가진 복합 문화 이벤트에 대한 기록이자 ‘우리에게 책이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도서전의 여정에 담긴 저자, 독자, 책을 둘러싼 시공간, 그리고 출판 문화와 지식 생산의 행위를 넘나드는 개인과 집단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도서전도 성장을 거듭해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독자들이 더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외 출판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국제성을 키워왔다.

도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 부스 평면도, 1983년 전국도서전시회 사진 등 지금의 도서전

이 있기까지 모습이 담긴 소중한 자료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야외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모처럼 펼쳐지는 책 축제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체험을 했다.

한 칸에는 기획전시 〈세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볼 수 있었다. 역대 선정작과 함께 실물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BBDWK(Best Book Design from all over the World and Korea)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선보였다. 1963년부터 독일 북아트재단(Stiftung Buchkunst)이 주최해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전시가 구성됐다. 더불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의 최고상인 ‘Gold Letter’를 수상한 10점과 2021년 수상작 10점,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10점 등 총 33점의 아름다운

책을 만나볼 수 있었다. 전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다양성의 지평과 이를 만드는데 기여한 디자이너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전시회 관람 후 D동에서는 출판사들의 전시 부스를 만날 수 있었다. 전시전에서 제일 처음 만나볼 수 있는 책들과 다양한 굿즈들이 이목을 끌었다.

요즘 이슈인 MBTI에 맞게 책을 추천해주는 부스도 있었다. 책들은 모두 포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킨다. 포장지 안에 어떤 책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지는 도서전만의 묘미가 느껴지는 코너였다.

부스 한 칸에는 리커버 도서 <다시, 이책> 코너가 자리 잡고 있었다.



리커버 도서 <다시, 이 책>은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 다시 한 번 선보이고 싶은 출

판사의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보석 같은 책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소개했다.

정세랑 작가의 <재인, 재육, 재훈>이 눈에 띄었는데 요즘 감성에 맞게 알록달록한 색감과 통통 튀는 일러스트들이 돋보였다.

한 칸에 마련된 청음 공간에서는 따뜻한 위로로 건네주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청음 공간은 독서와 어울리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악들이 계속 흘러나왔다.



리미티드 에디션 청음 공간은 2021 서울국제도서전 오리지널 콘텐츠인 리미티드 에디션 <굿 닷>과 함께 즐길 수 있는 Lemon의 플레이리스트를 레트로 플레이어로 청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코로나, 이상기후, 어긋나는 관계들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감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희망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감정들을

음악으로 담아냈다. A side Dooms와 B side Blooms를 오가며 끊기고 이어지는 감정들 안에서 새롭게 교차하는 감각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도 도서관을 찾았다.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20세기 초 근대자료와 그 출판사를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했다.

종로 일대의 근대출판사 지도도 있었는데 현재는 터만 남은 곳이 많지만 수많은 책이 탄생했던 곳들이라 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밖에도 다양한 신간과 원서들을 만나볼 수 있는 풍성한 도서전이였다. 행사 규모는 작았지만 여전히 알차고 볼거리가 넘쳤다. 이번 도서전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독자들을 위한 위로를 건네주는 곳곳의 공간들이 인상 깊었다.

또 도서전을 찾아준 많은 사람들을 보며 식지 않은 독서 열기를 실감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본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인 2021 국제도서전. 작은도서관 관련 부스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우리 작은도서관이 도서관계의 크고 작은 행사 속에서 반짝일 그날을 기대해본다.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 하나, 도서관

제57회 도서관주간

도서관주간은 한국도서관협회 주최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도서관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서관주간

4.12.

4.18.

다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 하나,
도서관

© 한국도서관협회, 표어 최우수작 :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4월 벚꽃이 피어날 때면 도서관에서 항상 진행되는 행사, 도서관주간이 올해로 57회를 맞이했다. 도서관주간은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서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홍보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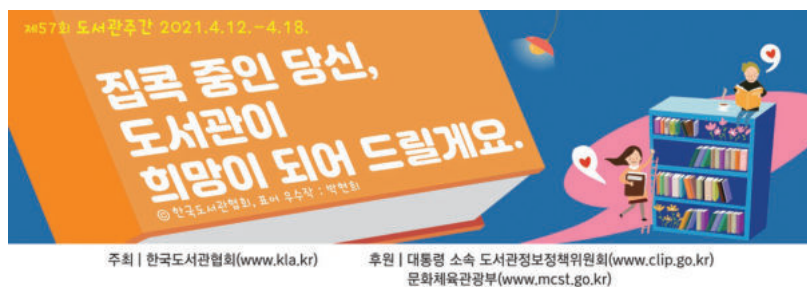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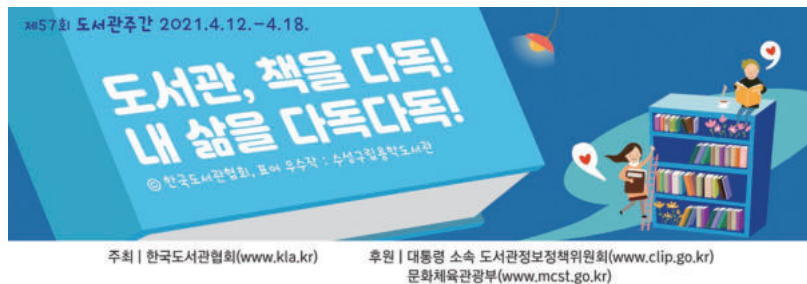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면서 도서관주간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독서 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했다.

주제 및 표어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2021년 공식주제는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하나, 도서관’이다. 공식표어는 ‘도서관, 책을 다독! 내 삶을 다독다독!’, ‘집콕 중인 당신, 도서관이 희망이 되어 드릴게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너진 일상과 삶의 가치를 도서관을 통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식과 위로의 공간이자 희망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도서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각 도서관만의 색다른 기획으로 이용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프로그램은 그 도서관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많은 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도서관주간 전용 홈페이지가 2021년부터 개설됐다. 전국 도서관에서 진행한 다채로운 도서관주간 관련 행사와 소식, 언론보도 현황을 도서관주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플로우 책축제

경의선 책거리

경의선 책거리는 마포구에 위치한 도시재생 공간이자 경의선 홍대북합역사에 독서문화가 살아 숨 쉬는 책을 테마로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세상에 나온 책 한 권의 가치를 통해 건강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출판 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2016년 10월 마포구에서 조성했다. 2019년 8월부터 (사)한국작가회의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의선 책거리는 경의선 용대 복합역사에 독서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책 테마 거리입니다. 다모구는 어엿을 찾는 시민들이 세상에 나온 책 한 권의 가치를 통해 건강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마로구 출판 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2016년 10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The Gyeongui Line Book Street is a special project space for books established by the district of Mapo-gu. It is an integrated cultural complex for living, breathing literary culture found within the historical spaces of Hongdae and the Gyeongui Line. Completed in October 2016, the Gyeongui Line Book Street hopes to impart a greater appreciation of books upon visitors, share knowledge and wisdom for a healthier lifestyle, and further advance the Mapo-gu publishing industry.

책거리 산책(서점)



이번 축제는 ‘따로 또 함께, 휴먼책거리!’를 주제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책방, 갤러리, 공방 등 9개 공간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경의선 책거리는 경의선 홍대입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유인물 에 있는 스탬프 이벤트를 완료하면 북플로우 축제에 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굿즈를 제공했다.

다채로운 6개의 산책(여행, 예술, 아동, 인문, 문학, 테마)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외에도 책

다채로운 독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경의선 책거리에서 2021년 5월 5일에서 9일까지 ‘북플로우 책축제’가 펼쳐졌다. 책의 콘텐츠가 발현되는 곳(The Place Revealing Contents of Books)인 경의선 책거리에서 생생한 책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북플로우 책축제를 탐방했다.

거리역, 텍스트의 숲 등 볼거리가 아주 많았다. 여행 산책에서는 여행 관련 가이드북과 소소한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여행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감성 가득 에세이들도 전시했다. 문화산책에서는 ‘칠칠단의 비밀을 찾는 칠칠 탐

정단: 서평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가 진행됐다. 어린이날 99주년을 맞아 아동문학가 방정환의 탐정 소설 '칠칠단의 비밀'을 주제로 초등학생의 수상작을 전시했다.

아이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책을 해석하는 능력은 놀랍다. 어른들은 할 수 없는 눈부신 상상으로 작품을 수놓고 있었다.

전시장 한 켠에는 참여자들이 고민을 의뢰하고 직접 해결해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 우리 모두의 고민인 '아이들이 게임만 하고 책을 멀리합니다. 책을 좋아하게 하고 싶어요.'를 만나볼 수 있었다.

해결책으로는 '가족이 다 같이 책을 읽을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요?'라는 훌륭한 답변이 달렸다.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는다면 아이도 책 읽는 습관이 금방 생길 것 같다.

다음은 우리 도서관의 미래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미래 산책이었다. 도서관계는 물론 출판문화사업의 미래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다.

오디오북과 디지털북 체험공간에서 '친구 할까?'라는 그림책을 읽어봤다. 그림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책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아할 것 같다. 축제장 한 편에는 책 읽는 버스가 이용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책 읽는 버스

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이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아늑한 공간으로 독서 문화 소외지역이나 지방 축제, 행사 등 책과 문화공간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책읽는버스는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며 독서캠페인을 제공하는 이동도서관이다.

전국을 누비며 책 읽는 독서문화를 만들고 있는 책 버스 안에서 독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년 책 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이용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독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책 버스 내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인원수를 제한했다.)

테마 산책에선 나만의 백조를 그리는 ‘별의별 백조’가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백조지만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백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만의 백조를 그리며 내 안의 철학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산책 부스를 거닐다 보면 거리의 끝 언저리에서

경거움이 물씬 풍기는 책거리역을 만나게 된다. 코로나19로 온라인에 더 비중을 실은 책축제였지만 오프라인도 풍성한 볼거리가 많았다.

경의선 책거리 김정연 총감독은 “오프라인의 한계점은 책거리에 와야 축제를 체험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전국의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사단법인 한국 작가협회에서 운영하며 앞으로 다양한 문인 작가, 시민 작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축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마포구에는 특색있는 독립서점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협업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경의선 책거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매년 색다른 행사와 체험형 프로그램들로 독서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경의선 책거리. 내년에는 책거리에서 작은도서관도 만나볼 수 있길 고대해본다.



04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Part.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 사서함

나의 인생 책 속 한 문장

작은도서관 이야기 공모전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 사서함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는 제57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해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 사서함’ 이벤트를 진행했다.

누군가에겐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 희망이 되고, 어떤 이에겐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 위로가 되며 우리 모두에게 견딜 힘과 힘이 되어주는 ‘작은도서관’의 따뜻한 사연이다.

작은도서관에서 일어난 책, 사람, 작은도서관에 대한 에피소드 중 선정된 사연을 소개한다.

제 57회 도서관 주간 이벤트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 사서함



누군가에겐 도서관에서 만난 ‘책’이 희망이 되고 어떤이에겐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 위로가 되며 우리 모두에게 견딜 힘과 힘이 되어주는 ‘작은도서관’

당신에게 작은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응모기간 2021. 3. 30.(화) ~ 4. 9.(금)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마음에도 봄을 느끼게 해 준 책 / 김*희

어느덧 포근한 봄바람을 마주하며 내 마음속은 따뜻하지 들여다볼 즈음 눈에 띄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도서관에서 찾은 ‘마음의 걸’이라는 책입니다.

책표지부터 완연한 봄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는 이 책 속에는 걸을 따라 풀어낸 마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서 묻어나는 따뜻함, 한 글자 한 문장 와닿는 이야기와 전해지는 감정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마음의 걸’은 SNS 5만 명의 독자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있는 작가 태희가 걸을 따라 풀어낸 마음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학교, 직장, 연인 사이, 가족 간에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모든 고민과 그때의 마음을 직접 바라보듯 글로 풀어내며 감정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인지 글을 읽어내려가며 공감을 하고,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금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 감정을 살펴보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각 파트는 인간관계, 사랑,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과 함께, 때로는 따뜻하게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걸

을 따라 풀어낸 이야기들은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가 위로를 건네주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글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데, 타인의 마음을 그의 마음이 되어 헤아리고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나로서 바라보는 노력과 함께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가져보니,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나와 상대의 감정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말보다 글의 힘을 믿으며, 혹 이 책의 걸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위로받고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만난 책, ‘마음의 걸’을 많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사람

친절한 영희 씨 : 거기에 ‘그 작은도서관’ 이 있고 ‘그 사람’이 있다. / 최*미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도 ‘매화 작은도서관’을 수시로 오가는 순회사서입니다. 저 역시 사는 지역에 처음 작은도서관이 생긴 2012년부터 3년간 다른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운영자님의 모습은 서점, 편의점, 치킨집, 하물며 아이들이 다닐만한 보습학원도 없는 지방의 작은 촌동네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책을 보고 독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그 방법을 찾는 것에 온 하루를 다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동네,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한글 공부를 걱정하고 행여 그런 환경에서 마음 다칠까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년별 아이들의 인원과 이름을 다 외우고 (물론 학년별 5~10명 정도의 작은 학교이지만) 목록지만은 않은 본인의 주머니 사정에도 사비로 배고픈 아이들에게 기꺼이 빵을 건네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때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영희 씨’였습니다. 사실 저와 띠동갑인 그녀, 그럼에도 소통이 되고 긴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비전공자에 나이 차이도 적잖이 났지만 도서관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꿈꾸는 도서관에서 진정한 사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통해서나마 그런 그녀에게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갈 길, 그게 맞고, 지금까지 잘해왔으며, 늘 응원하고 있다~ 라는 뜻을 이번 기회에 (작은도서관 사서함) 꼭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국에 있는 작지만 작지 않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님들께도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작은도서관

전화위복 / 김*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은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너무 잊고 싶은 기억이었는데 아들은 폭행을 당한 사실만 도려내듯 기억 상실했다. 나 또한 기억의 가위가 있다면 도려내서 없애고 싶은 끔찍한 일이었다.

갑자기 아들은 학교를 무서워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나는 아들의 다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아이의 심리치료가 끝나면 보호자 면담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심리치료 관련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셨다. 추천 책을 구매하려고 검색해 보니 절판되어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다가 도서관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 이미지는 넓은 책들만 가득하고 시설도 열악한 가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읽어보리라 맘먹고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집에서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찾았다.

들어가지마자 두리번거리는 내게 사서 선생님은 반갑게 인사하며 도서관 이용이 처음이냐고 물으셨다. 처음 방문이라고 하자 내게 도서관 이용안내와 회원 가입을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신간

도서와 교양 잡지도 많이 있으니 애용해 달라라는 말도 하셨다. 신간 도서 코너를 보니 내가 살까 말까 망설였던 읽어보고 싶었던 책들이 정말 많았다. 나는 그날 회원 가입을 하고 심리치료 선생님께 추천한 책을 포함해 한도를 꽉 채워 5권을 빌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도서관에 거의 매일 출근했다. 신간에 꽂힌 책들을 비롯해 나의 취미인 인테리어 관련 서적 그리고 교양 잡지들까지. 눈에 책이 아른거리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읽었다. 당시 나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아이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을 다친 아들의 걱정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었다.

그러나 책에 집중하니 나의 마음 그리고 아들을 때린 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서관에 매일 가서 책을 많이 읽으니 도서관에서 상도 많이 주셨다.

같이 도서관에 다닌 아들 또한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한 것 같다.

전화위복이 된 나의 도서관의 첫 방문.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보답할 차례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되도록 많이 알려주고 싶다. 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책에 흠뻑 빠지도록 오늘도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한다.

나의 인생 책 속 한 문장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나의 인생 책 속 한 문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펼쳐보고 싶은 책이 많아지는 가을을 맞아 다양한 인생 책의 한 문장을 공모했다. 인상 깊거나 소개하고 싶은 책의 한 문장을 책 제목과 함께 잘 나타낼 수 있는 글, 그림, 사진 등 선정작을 소개한다.

A poster for the event 'My Life Book One Sentence'. The background is a blurred image of a library with bookshelves. The title '나의 인생책 속 한 문장' is written in large, stylized Korean characters. The text '당신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는 여러분의 따뜻한 '한 문장'을 기다립니다.' is written in a white box. The dates '기 간 2021. 10. 12.(화) ~ 10. 29.(금)' are also present. At the bottom, there are logos fo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and the Small Library Network.

나의
인생책 속
한 문장

당신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는 여러분의 따뜻한 '한 문장'을 기다립니다.

기 간 2021. 10. 12.(화) ~ 10. 29.(금)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페인트



중고등 아이들이 옆에 서 있는 나에게 “가시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억지로 끌고 갈 생각은 마세요.”라고 선을 긋는 것 같다. 아이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충고를 하다 걱정마저 대신해주려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침묵과 저항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걱정할 뿐 아니라 질문하고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아이에게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저 자신만의 질문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성장한 아이를 기쁘고 존중하고 감사할 뿐이다. 어른의 잣대로 그들의 생각을 단순화시키지 않기를.

시간을 파는 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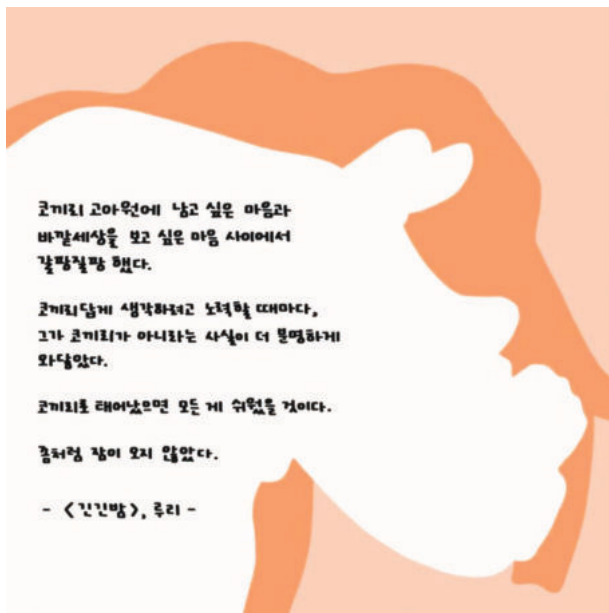
“야 너희 엄마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거야?”
 도서관 봉사 중에 만난 아이 친구의 물음에 뒤이
 어 들려오는 내 아이의 씩씩한 목소리
 “아니? 우리 엄마 아르바이트 아니고 봉사하시
 는 건데?”
 도서관에서 봉사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

며칠 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자리
 를 지키던 중에 펼쳐 든 책에서 눈에 들어오던
 구절 하나.
 “무엇보다 그 사람이 시간 당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알 수도 있겠다

는 뭐 그런 생각” - 도서 시간을 파는 상점 중
 시간 당 얼마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원
 봉사.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실력이 있어도 마음이 동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시간 당 얼마를 받지 않아도 행복하고, 가슴 따
 뜻해지는 일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다는 것을 나
 의 아이가, 아이의 친구가, 혹은 다른 이가 알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긴긴밤



“코끼리답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가 코끼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와닿았다. 코끼리로 태어났으면 모든 게 쉬웠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공상하기를 좋아했던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냈다. 엄청난 재력, 뛰어난 외모, 살가운 성격 등등.

이러한 상상들은 금세 나를 잡아먹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생각들을 가득 띄워냈다.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면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무엇이든 상상에만 그친다면 언제나 나는 부러워만 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걸.

긴긴밤 속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결국 노든이 바깥세상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막연한 미래를 앞에 두고 한 발짝 나아가는 노든이 대견함과 동시에, 나도 그러한 용기를 얻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여러 번 읽어 보았다.

작은도서관 이야기 공모전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벤트 ‘작은도서관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한 해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 중에 작은도서관 자랑, 수상내용, 뉴스나 홍보, 코로나19 극복방안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 진행 등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소개받았다.
도서관의 다채롭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꿈배달부가 전하는 꿈 조각북

6개월간의 청소년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꿈 이야기를 들어보고 롤모델을 찾아 만남의 시간도 갖고 뜻있는 시간. 그렇게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꿈 프로젝트를 맡은 꿈 배달부가 있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고 제주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멋진 꿈 조각북이 탄생했다. 그렇게 탄생한 꿈 조각북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꿈에 대해 한 번 더 다짐을 해보고 꿈으로 향하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기분이었으리라.

꿈 조각북 전시회 날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아 함께 보는 시간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모두들 꿈 조각북 한 권씩 받아들이고 꿈으로 향하여 한 발, 한 발 GO GO!

꿈이 있는 아이도 있고,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아이도 있다. 하지만 꿈이 있어도 매일 매일 꿈을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 잊기도 하고 또 때로는 꿈이 바뀌기도 한다. 여기 아이들도 꿈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꿈을 찾은 아이도 있고 꿈이 여러 개 있는 아이도 있었다. 우리 어른들도 '나는 꿈이 뭐였었지? 또는 나는 꿈을 이루었을까?' 등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천명’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LH다독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 코디네이터입니다.”

복지관 사무실 공간을 올리는 낯선 인사말에 책을 향하고 있던 시선들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낯선 사람들과 어색한 조우가 끝나고, 긴장했던 첫 도서관 출근을 시작으로 작은도서관 코디네이터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나의 도전은 시작되었다.

내가 근무하게 된 LH다독작은도서관은 2020년 하반기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사서도 아닌 코디네이터라는 호칭이 주는 낯섬은 주변인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임과 동시에 관찰의 대상으로 비쳤던 것 같다.

나에게 맡겨진 주 임무는 작은도서관에 숨을 불어넣는 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먼저, 도서관에 상주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닫아두었던 도서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주변 돌봄 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도서관을 향한 시선을 열어드렸다. 그리고 돌봄 센터 센터장님의 동의를 구한 후 돌봄 센터 이용 부모들에게 코디네이터 소개를 인사로 드렸다. 사람들이 주변인에게 무관심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존재감 없이 등장한 작은도서관의 코디네이터에게 쏠리던 관심이 하나, 둘 도서관으로 향한 걸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우리 도서관의 주 고객은 돌봄 센터의 아동들이다. 여기엔 나만의 비책이 숨어있다. 코로나로 한동안 이용자들이 없었던 도서관에 아이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따라야 하는 법이다.

사비를 털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가득 준비해두고 도서 대출 이용 아동들에게 선물로 건네주었다.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 처음 책을 접할 때 책표지에 꿀을 발라 맛보게 하지 않았던가.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독서의 맛을 알게 하고 싶었다.

작은도서관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코디네이터만의 개성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나는 눈썹지도를 해 온 경험을 우리 도서관 활성화에 접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서관을 찾아오는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도서관 선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눈높이에 맞는 책 대출을 안내해드렸다. 일종의 책 처방이라 할 수도 있는 대출 안내는 호응도가 높았고, 도서관 이용자와 신규 회원 증가에 기여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두고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공자는 나이 오십에 이르러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나이 때 공자와는 달리 새로운 도전에 용기 있게 다가서고 있다.

나의 따뜻한 조언 한 마디와 밝은 미소가 책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사람들을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지천명'이라는 이름이 부럽지 않은 '프로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



책 읽는 LH, 행복한 효천

LH효천행복작은도서관은 “책 읽는 LH, 행복한 효천”이라는 평생행복학습 슬로건으로 입주민들의 독서를 통한 쉽고 지식 소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간, 더 폭넓게 입주민 소통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회사서 및 코디네이터의 전담인력으로 완벽한 십진 분류와 대출반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신간 서적 구입과 독서 공간 시설 및 환경을 구축하고, 폭넓은 독서능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독서행사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민 비율 특성상 노년층과 청년층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세대 간의 어울림이 완성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정서관리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그것에서 오는 힐링과 치유를 도모하여, 코로나 19시대의 건강관리 및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위한 친환경 실천공간으로 자원순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업사이클링, 제로웨이

리스트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친환경 실천 의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도서관이 입주민들의 평생학습 시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 및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한 강좌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등 기타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 교류 관계를 확대해 지역의 문화 공간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 진행에 앞서 각종 홍보물 작업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 후에는 보도자료 첨부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여, LH효천행복작은도서관의 활동들을 홍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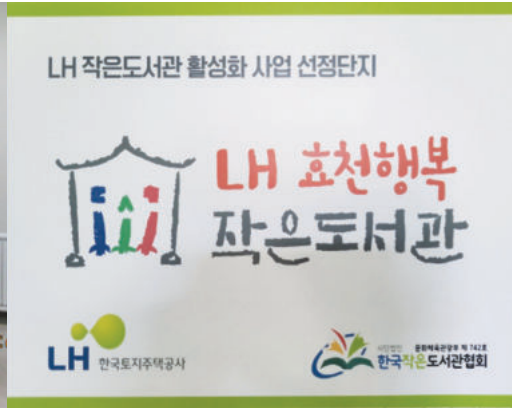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과 노력으로 LH커뮤니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그 상금으로 입주민들에게 공을 돌리고자 작은도서관에서 마지막 “2021 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의 도서관 발길과 더불어 올 한해 작은도서관에서의 활동들을 되새기며, 세상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박수

갈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에너지 넘치는 독서 문화 활동으로

LH효천행복작은도서관의 이름처럼 입주민 모두의 행복한 발길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좋은 책 한 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산간벽지 · 농어촌 · 섬마을에 사랑의 책 한 권을 보냅니다!



Since 1987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농어촌, 산간벽지, 섬마을에 학교도서관을 개설합니다.



KB작은도서관 조성

KB국민은행 후원으로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찾아가는 책읽는버스

KB국민은행 후원으로 도서관이 없는 농산어촌 마을을 찾아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강남구립도서관 16개관 위탁운영

지역사회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강남구립도서관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 실태조사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으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론 공동캠페인

2008년부터 동아일보, 강원일보, MBC, 한국일보 등 다수의 언론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 작은도서관 이야기

발행일 2022.11.

기획 최민희

취재, 글 윤혜린

발행인 김수연

발행처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

전화 02-515-1178

팩스 02-515-1156

이메일 slibrary@naver.com

홈페이지 www.smalllibrary.or.kr

ISBN 979-11-966805-3-4

